

#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

## - 맞벌이가구를 중심으로 -

황수경·김가을\*

### I. 머리말

우리나라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종종 남편의 경제적 지위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기혼여성의 자산은 남편의 은닉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조세정책이 수립되는가 하면 배우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혜는 여성을 전업주부로 간주하고 논의되기 일쑤다. 성 역할(gender role)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가부장주의가 많이 탈색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부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보다는 소득원인 남편의 부양가족 혹은 보조적 소득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자료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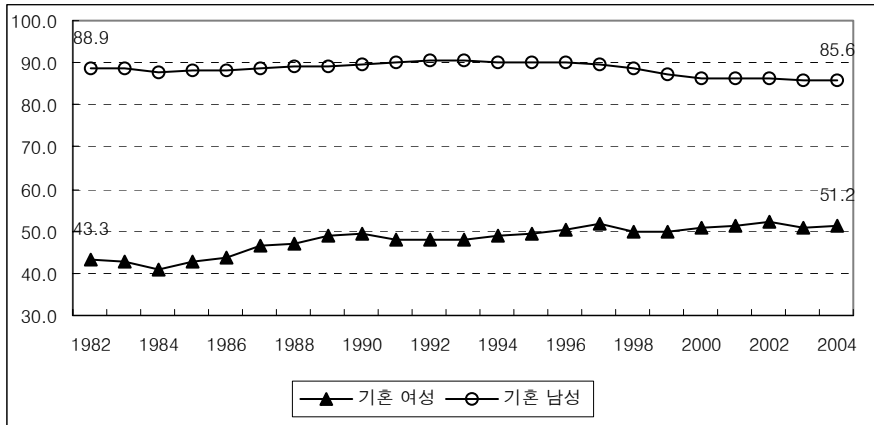
1982년 당시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3.3%에 불과하여 유배우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88.9%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자 여성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이 절반을 넘어 2004년 현재 51.2%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1). 물론 유배우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70%에 달하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유배우자 남성 참가율이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증가세를 지속해옴에 따라 부인과 남편간의 경제활동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 황수경=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skhwang@kli.re.kr), 김가을=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kimgayul@kli.re.kr).

1) 2000년 현재 자녀가 있는 부부 중 맞벌이 비율은 영국 70.2%, 네덜란드 67.3%, 독일 60.3%, 프랑스 6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EU Eurostat news release STAT/02/60, 21 May 2002).

[그림 1] 기혼(유배우자)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근거는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기혼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기혼남성 월평균 임금의 58.0%에 불과하다.<sup>2)</sup> 1982년 당시 이 수치가 42.3%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상당히 개선된 수준이다. 기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취업한 기혼여성의 임금수준도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평균적인 의미에서 부인이 남편에 비해 경제활동에서 부차적인 지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개인자료를 이용한 이 같은 통계수치는 배우자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부인과 남편의 경제적 지위로 직접 연결지어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부의 경제활동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인과 남편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가구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을 분석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분석대상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부로 한정된다.<sup>3)</sup> 이 중 부인의 취업률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부부 자료

2)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는 배우자 유무에 관한 정보가 없다. 한편 임금은 상여금 월할분이 포함된 월평균 급여총액으로 산출되었다.

3) 가족구성원 중 부부는 한 가구 내에서도 복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부들을 빠짐없이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KLIPS 가구자료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68개)로부터 추출가능한 모든 부부 형태를 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부부 자료를 구성하였다. 한편 학력·고용·소득 관련 변수들은 KLIPS 개인자료에서 제공하므로 남편과 부인 각각의 개인정보 중 분석에 필요한 부분을 개인고유번호를 이용해 부부 자료와 결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차년도(1998)의 경우 2,863쌍 5,726명이고, 7차년도(2004)의 경우는 2,705쌍 5,410명이다.

가 사용되었고, 소득 분석에는 7차년도 부부 자료 중 맞벌이 부부이면서 소득정보에 결측치가 없는 607쌍 1,21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II. 기혼여성의 취업·소득과 남편소득간의 관계

### 1. 남편 소득분위별 기혼여성의 취업비율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소득원이 종래의 남편 1인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버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구소득 수준(혹은 남편의 소득수준)과 체계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면 가구소득 분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기혼여성일수록 부족한 가구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구소득 분배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반면 결혼을 통해 ‘유유상종의 짝짓기’(positive assortive mating)가 이루어진다면 고소득 배우자를 가진 기혼여성이 인적자원 면에서 경제활동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고 그 결과 고소득 가구에서 부인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가구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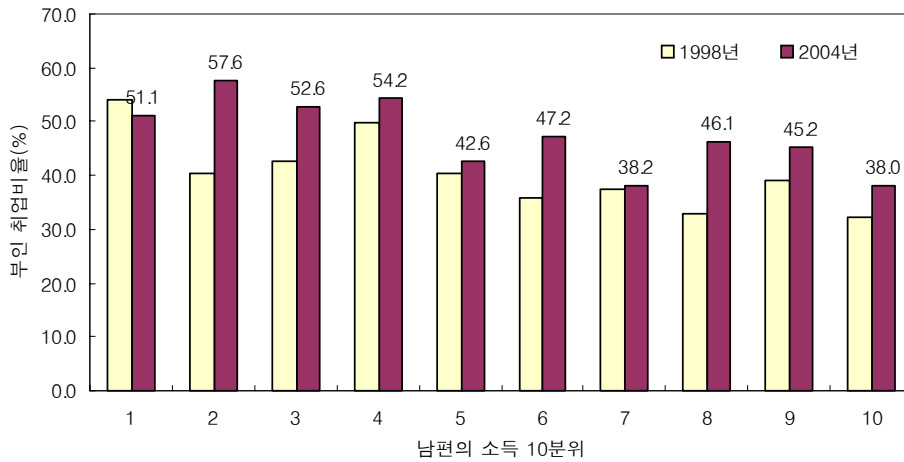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가구소득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고 있을까? <표 1>은 남편의 월평균 소득을 10분위로 범주화하여 각 분위에 속한 부인들이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2004년도 유배우자 가구 중 기혼여성의 평균 취업비율은 47.3%로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40.2%)에 비해 약 7% 정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남편소득 10분위별 기혼여성 취업비율(1998, 200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8	총인원(명)	2,863	286	286	287	286	286	287	286	286	287	286
	취업자(명)	1,152	155	115	122	137	115	103	107	94	112	92
	비율(%)	40.2	54.2	40.2	42.5	49.9	40.2	35.9	37.4	32.9	39.0	32.2
2004	총인원(명)	2,705	270	271	270	271	270	271	270	271	270	271
	취업자(명)	1,279	138	156	142	147	115	128	103	125	122	103
	비율(%)	47.3	51.1	57.6	52.6	54.2	42.6	47.2	38.2	46.1	45.2	38.0

주: 남편의 소득 10분위는 조사년도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7차(2004년) 원자료.

[그림 2] 남편의 소득분위에 따른 기혼여성 취업비율(1998, 2004)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저소득 가구인 1~4분위에 속한 기혼여성들의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소득 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8년과 비교하면 최저 소득분위인 1분위를 제외하면 여타 소득수준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고 중간소득층에서 증가폭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부분적인 골곡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부인의 취업비율이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 고소득층 기혼여성 취업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점차 혼재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중간소득층에서보다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에서 부부간 역할관계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더 많은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2. 남편 소득분위별 기혼여성의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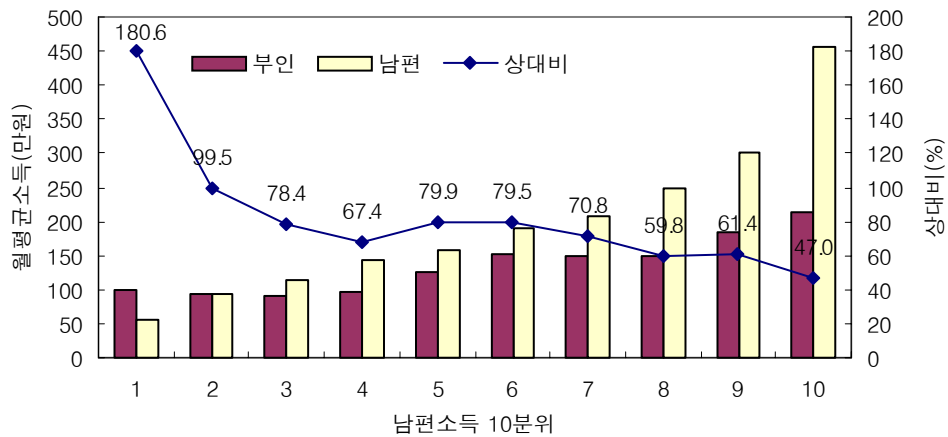
이제 관심을 소득으로 돌려보자. 기혼여성의 소득은 남편소득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부부(607쌍)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편과 부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본 것이 [그림 3]이다.

2004년 현재 남편과 부인 각각의 전체 평균 월소득액은 남편의 경우 197만원, 그리고 부인은 135만원으로서 일반적인 예상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소득분위별로 각 범주에 속한 부부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소득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구간 내에서의 소득평균치는 남편이 부인보다 높아 가정내 1차 소득자가 남편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부부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이러한 전통적 개념이 고소득 가구에서 더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1분위와 2분위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 소득층인 1분위 부인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남편 월평균 소득액의 180%를 상회하고 있다. 2분위에서는 이와 같은 역전은 보이지 않지만 부부간 거의 같은 수준의 소득액 분포를 보임으로써 ‘남편이 더 많이 번다’는 일반적 통념이 지지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내 남편과 부인의 역학관계나 경제적 지위를 분석함에 있어 평균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다양성을 전제로 가구 내에서의 남편과 부인의 특성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할 유인을 제공한다.

[그림 3] 맞벌이부부의 월평균 소득분포



주: 상대비는 남편소득 대비 부인소득의 비율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 III. 맞벌이가구에서 부인의 경제적 지위

#### 1. 부부의 학력결합과 부부합산소득

맞벌이부부 내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학력이다. 개인 수준에서 볼 때, 학력은 임금과 정(+)의 관계를 갖는 대표적인 인적자본 변수이다. 따라서 부부를 단위로 소득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부인과 남편의 학력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 이를 매개로 하여 소득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2>는 분석대상 커플들의 학력결합과 각 결합 셀에 있어 부부합산 연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맞벌이부부간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이 표에서 드러나듯이 결혼에서의 일반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유유상종의 짝짓기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졸을 제외하고는 모든 셀에서 동등한 학력결합의 백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졸 이하의 남성은 중졸 이하의 여성과, 고졸남성은 고졸여성과, 그리고 대졸 이상 남성은 대졸 이상 여성과 혼인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 유형의 부부가 전체 부부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진한 회색영역). 여기에 덧붙여 부부간 학력결합의 비대칭

<표 2> 맞벌이부부의 학력 분포 및 부부합산 연평균소득(N=607쌍)

부인학력 \ 남편학력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백분율 분포(%), 빈도)				
중졸 이하	22.4 (136)	9.2 (56)	0.3 (2)	0.2 (1)
고졸	2.8 (15)	26.4 (160)	3.8 (23)	8.7 (53)
전문대졸	0.0 (0)	1.5 (9)	1.8 (11)	6.7 (38)
대졸 이상	0.0 (0)	1.0 (6)	0.8 (5)	15.2 (92)
부부의 연평균소득(만원)				
중졸 이하	2,288	2,935	3,264	3,012
고졸	2,263	3,535	3,769	4,527
전문대졸	·	5,021	4,512	4,878
대졸 이상	·	3,516	5,090	6,278

주: 연평균소득은 조사 전년도(2003년) 부부 각각의 연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성도 두드러진다. 즉,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진 부부의 분포는 29%(진한 회색영역의 우측 상단)를 차지하는데 반해 반대로 남편의 학력이 부인보다 낮은 경우는 6%(진한 회색영역의 좌측 하단)에 불과하다.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약 94%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부부가 남편이 부인보다 학력이 높거나 같은 학력결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맞벌이부부의 경우 동등학력결합이 절반 정도(50%)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인 학력이 낮은 경우가 28%, 부인 학력이 높은 경우가 22%로 비교적 대칭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sup>4)</sup> 우리의 경우 매우 가부장적 특성을 나타내는 학력결합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과거 여성의 교육기회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았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사 학력의 성별 격차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저조한 경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 편중된 학력결합에 의한 가구간 소득격차의 확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부부의 학력결합 셀에 따른 연평균소득 분포를 보여주는 <표 2>의 하단부는 이러한 학력의 짝짓기 결과가 가구소득에서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기혼여성 자신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남편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연평균소득은 증가한다. 그러나 남편의 학력보다는 부인의 학력이 부부합산소득 증대에 더 확연한 효과를 미치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 2. 소득분위 범주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소득분포

남편과 아내의 소득분위를 각각 5분위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속한 맞벌이부부의 분포와 각 셀에 속하는 부부들의 연소득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3>의 상단은 남편과 부인의 소득분위 교차표인데,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가 같은 소득분위에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31%를 차지한다.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은 소득분위에 있는 경우는 33%,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은 소득분위에 있는 경우는 36%를 차지하여 학력결합에 비해 소득결합의 편중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의 하단의 연평균소득 분포는 부부의 소득분위 결합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남편의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부인의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부부합산 소득액 역시 증가한다. 다만, 남편소득이 3분위, 부인소득이 5분위인 경우 연소득이 전체적인 추이와 달리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셀의 부인 1인이 1억 2천만원이라는 정상치를 벗어난 높은 값을 갖기 때문에 평균값이 과대추정된 결과로, 이 한

4) 미국 수치는 CPS 1993년도 자료로부터 추출된 것이다. Winkle(1998)의 44쪽 참조.

사례를 제외하면 평균소득액은 5,765만원이 되어 전체적인 추이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한편, 학력결합의 결과와는 달리 소득결합의 결과에서는 남편의 소득수준이 부인의 소득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남편의 분위 상승에 의한 부부합산소득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맞벌이부부의 월평균 소득 5분위 분포 및 부부합산 연소득 분포

남편소득 부인소득	1분위 (n=121)	2분위 (n=121)	3분위 (n=121)	4분위 (n=121)	5분위 (n=121)
백분율 분포(% , 빈도)					
1분위	5.4 (33)	5.3 (32)	3.5 (21)	3.6 (22)	2.1 (13)
2분위	5.6 (34)	5.6 (34)	3.6 (22)	3.3 (20)	1.8 (11)
3분위	4.8 (29)	4.3 (26)	4.9 (30)	3.5 (21)	2.5 (15)
4분위	2.6 (16)	3.8 (23)	4.4 (27)	4.9 (30)	4.1 (25)
5분위	1.5 ( 9)	1.0 ( 6)	3.5 (21)	4.6 (28)	9.7 (59)
부부의 연소득 분포(만원)					
1분위	1,320	2,031	2,562	3,311	4,584
2분위	1,654	2,175	2,841	3,502	4,656
3분위	1,991	2,656	3,068	3,601	4,808
4분위	2,789	3,615	3,816	4,758	6,040
5분위	3,616	4,080	6,148*	5,930	7,861

주 : 1) 연소득은 조사시점의 전년도(2003년)의 연소득으로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보고한 연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2) 이 수치가 전체적인 추이와 달리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셀의 부인 1인이 정상치를 벗어난 매우 높은 값(1억 2천만원)을 갖기 때문임. 이 사례를 제외하면 평균소득액은 5,765만원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 3. 맞벌이부부 내 부인의 상대적 소득수준

〈표 4〉는 남편과 부인 각각의 소득수준과 함께 부부간 소득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남편소득을 기준으로 부인의 상대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부인소득이 남편소득의 68.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앞서 [그림 3]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분위별로 편차가 매우 커 저소득 분위인 1분위에서는 평균적으로 부인의 소득이 남편소득을 훨씬 초과하여 남편소득의 약 1.3배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고소득 분위인 5분위에서는 부인소득은 남편의 절반 수준인 52.5%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일반적으로 남편소득이 낮을수록 가구 내에서 부인이 경제활동에 주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구별로 부부의 소득을 비교하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맞벌이부부 가운데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쌍은 전체의 2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전체 맞벌이 가정의 1/5 이상에서 실제로는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부인이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경우는 13.3%, 50% 이상 버는 경우는 7.4%, 두 배 이상 버는 경우도 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맞벌이부부의 월소득 비교

	전 체	남편의 월소득 분위		
		1분위	3분위	5분위
부인의 월소득 평균(천원)	1,351	965	1,379	1,987
남편의 월소득 평균(천원)	1,967	736	1,727	3,785
남편소득 대비 부인소득 비율(%)	68.7	131.1	79.8	52.5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부인(%)	20.9	47.2	19.1	8.9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부인(%)	15.8	43.8	14.5	4.1
남편보다 50% 이상 버는 부인(%)	9.9	31.4	8.3	1.6
남편보다 100% 이상 버는 부인(%)	5.8	20.7	5.0	0.8

주 : 소득비교에는 조사년도의 월평균소득액이 사용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표 5〉 맞벌이부부의 소득수준 비교 - 미국(1993)

	전 체	남편의 월소득 분위		
		1분위	3분위	5분위
남편소득 대비 부인소득 비율(%)	73.6	133.5	75.8	47.8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부인(%)	25.4	57.2	20.6	6.5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부인(%)	13.3	41.4	9.7	2.6
남편보다 50% 이상 버는 부인(%)	7.4	31.6	4.8	1.0
남편보다 100% 이상 버는 부인(%)	3.3	18.3	1.4	0.4

주 : 소득비교에는 시간당 임금이 사용됨.  
 자료 : Winkle(1998), 46쪽의 Table 4.

남편소득이 적을수록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여성이 많고 남편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감소한다. 1분위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인들이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3분위에서도 이 비율은 19.1%에 달하지만 5분위에서는 8.9%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남편이 아주 많이 버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사회의 상당수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면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표 5). Winkle(1998)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맞벌이가구의 25.4%가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소득을 갖고 있

으며 1, 3, 5분위별로 각각 57.2%, 20.6%, 6.5%의 부인이 남편보다 고소득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분위별 편차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표 6>은 기혼여성의 고용관계가 덜 안정적인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맞벌이부부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부인의 기여와 부부간 소득의 상대적 지위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6> 맞벌이부부의 연간소득 비교

	전체	남편의 연소득 분위			부부합산 연소득 분위		
		1분위	3분위	5분위	1분위	3분위	5분위
부인의 연소득 평균(만원)	1,525	966	1,599	2,312	638	1,134	3,276
남편의 연소득 평균(만원)	2,290	850	2,041	4,268	940	2,167	3,885
부부합산 연소득(만원)	3,815	1,816	3,640	6,580	1,577	3,301	7,161
남편소득 대비 부인소득(%)	66.6	113.6	78.3	54.2	67.9	52.3	84.3
부부합산소득 대비 부인소득(%)	40.0	53.2	43.9	35.1	40.5	34.4	45.7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부인(%)	19.9	43.8	18.2	7.3	26.5	12.4	28.5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부인(%)	13.3	31.4	14.9	2.4	18.2	8.3	19.5
남편보다 50% 이상 버는 부인(%)	8.6	25.6	7.4	0.8	14.9	4.1	14.6
남편보다 100% 이상 버는 부인(%)	5.3	18.2	4.1	-	9.9	2.5	8.1

주: 1) 소득비교에는 조사당시 전년도의 연간소득액이 사용됨.

2) 표의 중간 열에서는 남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성하였고, 우측 열에서는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성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대체적인 결과는 <표 4>의 패턴과 거의 유사하나, 남편소득에서 부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남편보다 소득이 많은 부인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간을 단위로 할 때 부인의 경우 남편보다는 총근로일이 적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부부소득에서 부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맞벌이가구 평균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부합산 연소득을 5분위 범주로 나누어 비교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특징들과는 다소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6>의 우측 세 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고소득 분위인 5분위에서 남편소득 대비 아내소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아내의 비율에서도 저소득 분위보다 고소득 분위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중간소득 분위에서는 소득에 있어 남편의 확고한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소득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기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소득이 가구의 소득수

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IV. 맺음말

올해 우리 사회는 여성 경제활동인구 천만 시대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사상 처음으로 마(魔)의 50%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데 가장 확실하게 기여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기혼여성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가구의 보조소득원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차적인 지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맞벌이가구 중 5분의 1이 남편소득보다 부인소득이 많은 가구로 특징지어지며 부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 가구 전체의 소득수준 자체가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온전하게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평가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실의 변화를 토대로 사회적 통념이나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 <참고문헌>

- Juhn, Chinhui & Kevin M. Murphy(1997), "Wage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5, No.1, Part 1(Jan. 1997), pp.72~97.
- Winkler, Anne E.(1998), "Earnings of Husband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Monthly Labor Review*, April 1998, pp.42~48.